

◆ 정기총회 및 세미나 성료

— 「복음과 의료」 주제로 —

본 협회 81년봄 세미나와 정기총회가 지난 4월 24일 전국회원병원에서 90여명이 모인 가운데 대구 파티마병원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오후 2시 대구교구 이문희 주교님의 격려 말씀으로 시작한 세미나는 「복음과 의료」를 주제로 파티마병원 백브라치도 신부와 서울교구 김중호 신부의 주제강연에 이어서 가톨릭 중앙의료원 원목실장 이문주 신부의 「병원에 있어서의 원목활동」에 대한 특별강연이 있었다.

저녁 7시부터 속개된 정기총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임기만료한 임원을 선출하고 당면 문제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

임원 선출

- 협회장 : 가톨릭중앙의료원장 (당연직)
- 부회장 : 메리놀병원장 (유 임)
- 상임이사 : 가톨릭중앙의료원의무원장 (유 임)
- 이 사 : 대구파티마병원장 (유 임)
- 이 사 : 성바오로병원장 (유 임)
- 이 사 : 대전성모병원장 (유 임)
- 이 사 : 성빈센트병원장 (유 임)
- 이 사 : 대구가톨릭병원장 (신 임)
- 이 사 : 부산성분도병원장 (신 임)
- 감 사 : 성가병원장 (유 임)
- 감 사 : 성모자애병원장 (신 임)

토 의 사 항

- ① 82년봄 세미나에는 병원 경영전문가 미국 성

메리병원장점 버지니아·의과대학부속병원 경영학과 외래교수인 리차드·D·오렐리씨 등을 초청하여 병원경영분야에 대한 교육 심포지움을 개최하기로 하였음.

- ② 84년으로 맞는 한국천주교회 200주년 기념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거국적 기념회의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각 회원병원의 구성원들이 느끼는 문제점을 수합하여 기념회의 의제자료로 제출하기로 하였음.
- ③ 금년 가을세미나에는 조선교구 150주기념사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10월중에 본 협회와 가톨릭 의사협회, 가톨릭 간호협회가 연합회의를 가지고 150주년 기념의제가 될수있는 문제를 세미나 주제로 다루기로 하였음.
- ④ 해외교포들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한 「한국천주교 교포사목 위원회」가 오는 5월 22일에 창립총회를 가지고 발족하게 되는데 해외교회와 본국 교회간, 또는 교포상호간에 영적인 유대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각 회원병원은 이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 기도와 성금으로 후원하기로 함.
- ⑤ 각 회원병원 현황보고가 있었는데 그 중 400여명의 불구환자를 수용하고 있는 성심인애병원은 전문의의 진료를 필요로하는 안과, 치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등 진료요원이 없어 애로가 있음으로 이에 대한 의료봉사지원이 있기를 희망하는 보고가 있었음.

◆ 부평 성모병원 재활원설립

주로 뇌성마비아 수용하기로

부평성모자애병원 부설 『「엠마누엘」 어린이집』 (원장 = 박병예수녀) 개원식이 지난 5월 2일 부평 현지에서 거행됐다.

주로 뇌성마비아를 수용할 이 재활원은 물리치료실, 언어치료실, 교실, 작업요법실 등을 구비하고 있으며 의사는 부평성모자애병원에서 파견된다.

한편 이날 개원식에는 안용팔 의무원장, 인천교구장, 가톨릭사회복지회 안경렬신부, 재활의학과 「레지턴트」, 환자가족 등 1백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축성식을 주례한 나길모주교는 『신체장애어린이들은 그리스도의 고통에 동참하고 있는것』이라고 전제, 『고통받는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협조를 아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런데 이날 문을 연 엠마누엘의 집은 4세에서 8세까지의 취학전 장애자 어린이들을 수용, 유치원 교육과정과 물리치료 및 생활교육을 실시하게 되는데 현재 10명의 어린이가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인천 시내 신체장애자 수는 3천1백70여명으로 부평지역 관내에만 1천1백85명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 파티마 병원등 대통령 표창

경산 열차사고 신속진료공로

전두환 대통령은 지난 4월 21일 청와대에서 경산열차충돌사고배 부상자 치료에 큰 공을 세운 대구파티마병원과 경북의대부속병원을 대통령 단체표창했다.

손 대통령은 이날 두병원의 단체표창에 이어 안두홍 경북의대 부속병원장 김규명 서무과장, 「메리아그네스」파티마병원장·하용마·의무원장·최수호 경리과장·박제윤 의무기록과장 등 6명의 병원관계자 및 나도현 보사부 차관·김응길 총무처장과 함께 오찬을 들며 이들의 노고를 치하 격려했다.

이들 두병원엔 중상자 61명, 경상자 87명 등

모두 148명을 진료하고 사망자 30명의 사후처리를 맡아 했는데 그간 162명의 의사와 181명의 간호원을 비롯 기타 49명등 총 392명의 의료진을 동원했다.

◆ 부천 성가병원 기공

지난 3월 19일 부천성가병원 기공식이 가톨릭 중앙의료원장 김창렬 신부, 안용팔 의무원장, 조규상 가톨릭의대학장, 김명순 성가병원장 등 많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부천시 소사동 현지에서 거행되었다.

대지 3,500 평위에 지하 1층 지상 10층 연건평 5,600 평으로 총 350 「베드」규모의 가톨릭 의대부속병원으로 기공했는데 83년에 완공할 계획이다.

◆ 뇌 신경통증연구소 설치

성바오로병원 국내최초로

성바오로병원은 지난 5월 1일 국내 최초로 「뇌신경통증연구소」(소장: 최창락교수)를 개설했다. 그동안 미국 뉴저지 신경통증 연구소장이 내한하여 구체적인 시설등에 관해 협약했고, 일본 관동대신병원 통증연구소와 자매결연을 맺어 설립된 이 연구소는 암에서 유발되는 신경통증과 뇌질환통증의 치료 및 연구, 신경의학 전문의에 대한 교육과 연수를담당하게 된다.

가톨릭 정신과 의학적·종교적 윤리를 바탕으로 운영될 동 연구소는 「어텐딩시스템」을 도입하여 신경전문의 11명으로 의료진을 구성하였으며, 전기 자극기, 주파 치료기, 감각기(Ovoked Potential) 초음파 단층촬영기, 시프론 이산화탄소 「레이저메스」등 최신 의료기기를 구비하고 있으며 침술도 연구, 치료에 이용하게 된다.

국내 첫실험 단계이므로 아직 환자수는 적으나 앞으로 이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며, 외국 관계 연구소와 계속 기술교류 및 공동학회를 통해 아직 미비한 단계의 여러가지 실정을 보완하게 된다.

한편 이용하기를 원하는 환자는 예약으로 신청하면 된다.

◆ 백만인 걷기대회 성료

가톨릭 중앙의료원 후원

지난 5월 10일 제 8회 백만인 걷기 대회가 성대히 개최됐다. 이 대회는 신체장애자를 위한 모금운동으로 과거에는 대회보다도 뜻깊은 모금운동으로 김수환 추기경께서 명예 대회장을 맡고 성라자로 마을원장 이경재 신부가 본부장으로 이 대회를 주관했다.

이 대회 후원단체인 가톨릭중앙의료원과 성모자선회에서는 구급차량, 마이크로버스, 간호원과 행사안내원 10명을 파견하였고 후원금 페난트와 음료수등을 제공했다.

◆ 자연적 가족계획 진료소개설

서울 성바오로병원

서울 성바오로병원(원장: 방용자 수녀)은 지난 6월 1일 가톨릭가족계획진료소를 개설하고 본격적으로 자연법에 의한 가족계획상담을 시작했다. 성바오로병원 526호실에 설치된 가족계획진료소는 토·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상담을 실시한다. 서울대교구내에서 명동성모병원과 성분도병원 에 이어 가톨릭병원으로는 3번째로 문을 열었다.

◆ 대전성모병원「幸家運상담실」

폭넓은 相談전개

대전 성모병원 가족계획상담실이 행복한 가정운동 상담실로 명칭을 바꾸고 보다 폭넓은

상담역을 수행하고 있다.

행복한 가정운동 상담실에서는 임신을 원하거나 원치않는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점액관찰법·빌링스씨법등 자연적인 방법을 계몽하고 청소년들에게 순결교육·혼전 지도는 물론 미혼모상담도 실시하고 있다.

◆ 무료진료와 지역모임강화키로

부산 가톨릭의사회 定總

부산 가톨릭의사회(지도·이경우신부, 회장·강준모)는 지난 4월 26일 적기 사랑의 집에서 정기총회를 개최, 회장에 강준모씨를 유임시키고 의사회내에 지역부를 신설하여 지역별 모임을 강화, 모든 행사 및 연락을 지역단위로 시행할 것을 결정했다.

이를 위해 의사회는 5개 구역과 메리놀분도·대학병원에 각 지역부를 설치, 지역장을 중심으로 의료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이날 총회에서 의사회는 금년도 중요사업으로 국민자를 위해 매일 첫째 일요일마다 실시해 오던 아미동 고정 진료소 운영을 계속하는 한편 교구내 50여개 본당에 무료진료권 3매씩을 발행, 치료가 불가피한 국민환자를 위해 완치까지 봉사키로 결정, 각본당 신부를 통해 환자를 엄선할 것을 정했다.

또한 의사회는 교구내 공소중 한군데를 선정, 자매결연을 맺어 가톨릭 약사회·간호원회와 공동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할 것도 결정했다.

이어 의사회는 회원들의 책임감 고취 및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의사 부인회를 결성 5월중으로 첫모임을 개최키로 했다.

특히 이날 총회에 앞서 의사회는 오전 10시부터 부부동반으로 피정을 실시했는데 박홍신부의 「가톨릭 의사와 그리스도 안에서 의치유」란 강의 및 자유토론 등으로 회원들과 부부간의 사랑을 재확인하며 가톨릭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을 다졌다.

◆ 회원확보에 주력키로

인천 가톨릭 간호원 定總

인천 가톨릭 간호원회(회장·유장진)는 지난 17일 오전 10시 연수동 적십자 요양원에서 81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냉담환자 본당 연결 및 회원확보·자질향상」 등의 사업에 초점을 맞춘 81년도 주요활동계획을 설정했다.

호인수 지도신부를 비롯 회원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정기총회는 이준희신부의 「나의 중재」 주제강의로 시작, 사업설정과 교황 패유를 위한 미사봉헌으로 이어졌는데 호신부는 미사중 강론을 통해 우리회원들은 직접 이든 간접이든 낙태수술에 참여하는 것은 교황님에게 총를 겨누는 범인보다도 더 큰 중죄를 짓는 것이라고 지적, 간호원들은 하느님이 주신 생명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원들은 교황의 건강이 하루 빨리 패유되기를 비는 묵주의 기도를 바쳤다.

◆ 교포사목 후원회 창립총회

기도 성금으로 지원키로

한국천주교 교포사목 후원회가 5월 22일 오후 4시 명동 사도회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회장에 홍성철씨를, 부회장에 안용팔, 박정훈, 박애주씨를, 감사에 유현석 김태봉씨를 각각 임원진으로 선출하는등 정식 발족했다.

주교회의 교포사목부 담당주교인 박정일주교와 총무 정은규신부 및 회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창립총회는 주교회의 교포사목부의 활동을 후원, 교포교회와 모국교회, 교포교회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교포사목의 제도적 발전을 꾀한다는 것을 주목적으론한 기본 사업 방향을 설정했다.

최근 교포사목에 대한 관심이 추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포사목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다

각적인 후원활동을 전개하게 될 교포사목후원회는 이날 창립총회에서 준비위원회가 제시한 후원회정관을 수정없이 통과시키는 한편 총재에 박정일주교를, 지도신부에 정은규주교를 각각 추대했다.

이날 총재 박정일주교는 인사말을 통해 『현재 해외에는 3백만에 육박하는 교포들이 살고 있으며 그들을 위한 사목활동은 그어느때보다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교포사목을 재정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후원하는 후원회의 발족을 계기로 교포신자들이 풍성한 신앙생활을 이어갈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회장 홍성철씨는 『판이한 생활. 환경속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교포신자들의 조국애와 신앙에 대한 목마름은 누구보다 크다』고 강조, 『우리는 기도와 정성으로 그들이 보다 풍요한 신앙생활을 가꾸어 나갈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호소했다.

한편 창립총회를 계기로 지금까지 확보된 후원회 국내회원은 모두 1백 40명(중신회원 5명 특별회원 64명 일반회원 71명)으로 집계됐다.

◆ 의료보험수가기준 개정고시

- 지역등차제 폐지
- 심야진료시간 연장
- 점수제를 금액제로
- 중환자관리료 가산제한 폐지

보사부는 6월 5일 의료보험진료수가 기준 및 요양 급여기준등을 개정, 제 81-34호와 제 81-33호로 각각 고시했는데 보사부는 이번 개정에서 중전의 지역별 등차제도를 폐지하고 심야진료시간을 연장하는 한편 점수제를 금액제로 바꾸고 중환자 관리료 가산의 제한을 폐지하는등 획기적인 제도개선을 단행했다.

6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진료수가는 피보험자의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 35%이상의 격차를 보이고있는 일반수가와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평균 16.6%를 인상했으며 지역별 추가등차제의 폐지·야간진료시간의 연장·중환자관리료의 가산제도 확대·병원재재료의 인정·1회용 주사기의 재료대인정등이 그 주요골자로 되어 있다.

개선된 세부내용을 보면 △지급까지의 접수제 수가 제도가 산정시착오와 불편이 많고 심사에도 어려움이 많았음을 감안 금액제로 바꾸고 △인구 50만의 도시를 대도시로 기준, 대도시 종합병원 20%, 병원 10%, 의원 4%, 기타지역 종합병원 16%, 병원 6%의 가산율을 인정해오던 것을 폐지, 의료기관 종별에 대한 가산제로 일원화하여 지역구분없이 종합병원 20%, 병원 10%, 의원 4%의 가산율을 적용하도록하여 의료기관의 지방개업유도책을 뒷받침했고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의 범위에서 인정 해주던 심야진료료 가산율을 「야간진료」로 용어를 변경시키고 시간을 오후 8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연장 △중환자관리료는 1일 1천 2백원씩 1주일간만 인정해 주던 것을 기간제한을 폐지, 실제 관리일수에 따라 산정할 수 있게 했으며 △간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간염으로 확인된 환자에게 사용된 1회용주사기의 재료대는 실구입가로 인정, 감염원을 봉쇄하는 조치를 취했다.

또 이밖에도 지금까지 거주지와 근무지에 대해서만 복수진료권을 허용해 주던 것을 인접도지역주민에게도 인정, 진료상의 불편을 해소시켰으며 병원이 자체고유제제를 투여할 때에는 소정조제료에 30%를 가산할 수 있게했고 조제료는 1회 14일분이내조제시 1회분만 산정, 15일분 조제시는 1백%를

가산하되 15일분이상은 조제하지 못하도록 했던것을 1~6일분은 1회, 7~13일분은 50%가산, 14일분이상 조제시는 1백%가산토록 투여일수의 제한을 완화, 만성질환의 장기투약을 가능하게 했다.

한편 치과의 보철과 부정교합의 교정은 급여대상에서 제외, 명문화했다.

77년 7월부터 실시된 의료보험은 80년말 현재 9백 11만 3천명을 보험혜택권에 포용하고 80년 한해동안 1천 7백 50만건의 진료실적을 올렸다.

이에 소요된 급여비는 1천 9백 58억원에 이르렀으며 건당 진료비는 1만 1천 1백 90원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인疾患 - 聽力장애, 肥滿症順

江南성모병원 健診센터分析

가톨릭의대부속 강남성모병원 종합건강진단센터가 지난 1년간 건강진단을 받은 6,707명을 대상으로 질환을 분석한 결과 한국인에게 많은 질환은 청력장애(38%), 시력장애(35%), 비만증(30%), 혈압이상(16%) 간기능이상(9%), 위염(8%), 당뇨(4%)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결과 연령별 빈도를 보면 30대와 40대 사람이 건강한 편이고 다음이 20, 50, 60대로 나타났고 비록 자신이 건강하다고 판단하지만 비만증, 시력 및 청력장애를 동반하고 있으며 간기능 이상과 혈압이상, 그리고 위장계통의 질환을 갖고 있음이 일반적인 경향으로 나타났다.